

The Logic Basic

By Jack

The Logic Basic

1주차

1. 책의 구성 및 내용
2. Q&A로 알아보는 논술 상식
3. 각 학교별 논술전형 분석(2015학년도)
4. 기본적 표현방법

The Logic

-> 1주차에서는 먼저 1장에서 책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생이 어떠한 순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Q&A 형식을 통하여 논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학생들이 각 학교별 논술 전형에 대해 대충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여 어떤 학교의 논술고사를 선택하여 공부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주차인만큼 부담 없이 원고지 사용법을 포함한 기초적 표현방법에 대해 익숙해질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4-2) 교정부호의 사용

다들 교정부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에 교정부호를 잘 알고 사용을 할 줄 아는 학생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깨끗하게 답안을 작성하려면 교정부호를 필수적으로 외우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긴장하여 표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제대로 된 교정부호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계속 답안을 작성해나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교정부호의 사용은 다른 학생과 차별화되므로,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 Logic

<교정부호 사용례>

부 호	교정 내용	보 기
	글자를 바꿀 때	물건이 가득 ^쌀 싸였다.
	글자를 뺄 때	영터리 ^이 였다.
	붙여 쓸 때	9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띄어 쓸 때	아름다운 파도소리
	글자를 넣을 때	<u>사랑을</u>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
	여러 글자를 고칠 때	아버지께서 ^{진지를} 밥을 잡수신다.
	줄을 바꿀 때	"누구세요?" <u>철수가</u> 문을 열면서 말했다.
	왼쪽으로 한 칸 옮길 때	<u>서로</u> 돕자.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길 때	<u>푸른</u> 하늘 은하수
	앞과 뒤의 순서를 바꿀 때	<u>일찍</u> 집을 나섰다.
	줄을 이을 때	이 풀은 <u>씀바귀</u> 다. [↷] 쓴 맛이 나서 <u>씀바귀</u> 라고 부른다.

<예시 답안>

	조	용	한	방	안	에	서	진지를 밥을	아버지가	드	신	다
--	---	---	---	---	---	---	---	-----------	------	---	---	---

실전연습 1-5

다음을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고쳐 쓰시오.

(‘그대도’를 윗줄로 보내고, ‘그리워하네.’를 아랫줄로 보냄)

생각하는가
그대도 나를 나도 그대를 그리워하네.

<고쳐 쓰기>

<예시 답안>

생각하는가
그대도 나를 나도 그대를 그리워하네.

4-3) 띄어쓰기 원칙

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띄어쓰기라고 합니다. 사실 현재의 띄어쓰기 규정은 너무 예외가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원칙만을 제대로 숙지하고 예외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만 안다면, 채점자의 눈에 크게 거슬리는 표현법은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눈술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도 평소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가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띄어써야하는지를 찾고 가는 습관을 기르길 바랍니다.

The Logic

한글 맞춤법 규정
①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처럼', '꽃에서처럼', '어디까지나', '웃고만' 등
②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먹을 만큼 먹어라.', '그가 떠난 지가 오래 되었다.' 등
③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소 한 마리', '연필 한 자루', '집 한 채', '신 두 켤레' 등
④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1,234,567,898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이사장 및 이사들' 등
⑥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일 두일' 등
⑦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불이 꺼져 간다.', '비가 올 듯하다.', '일이 될 법하다.', '잘 아는 척한다.' 등. 그러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⑧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등
⑨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등. 그러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⑩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실전연습 1-6

다음을 띄어 쓰시오.

로고스는 이성적인것을 가리키는것으로, 사고능력이라는의미를 가지고있다.

<고쳐 쓰기>

<답안>

로고스는 이성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고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전연습 1-7

다음을 띄어 쓰시오.

심지어는 오랜기간동안 전쟁과대립의 역사를 만들어왔는데,

<고쳐 쓰기>

<답안>

심지어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만들어왔는데,

실전연습 1-8

다음을 띄어 쓰시오.

김구선생님께서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쳐 쓰기>

<답안>

김구 선생님께서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실전연습 1-9

다음을 띄어 쓰시오.

먹을만큼먹었지만, 빵한개만 더 먹었더라면.

<고쳐 쓰기>

<답안>

먹을 만큼 먹었지만, 빵 한 개만 더 먹었더라면

4-4) 문장의 길이

논술을 쓸 때에는 문장을 간결하게 끊어서 답안을 완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복문보다는 단문으로 답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가 바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어색한 문장을 답안에 적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호흡이 긴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이 글을 적는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걸 제대로 글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우니 계속 글을 길게 쓰게 되는 겁니다. 또 문장이 짧아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문장에 하나의 주제 혹은 내용이 들어간다면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Logic

만연체와 간결체
문장에는 만연체(蔓衍體)가 있고 간결체(簡潔體)가 있다. 만연체는 말이 쓸데없이 길게 늘어져 군더더기가 많은 문체로, 간결하게 할 말만 하는 간결체에 비해 설명이 되풀이되고 수식이 많다. 글은 늘 간결한 것이 좋지만, 때로는 글에 따라 만연체로 써야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 따라서 간결체(한 문장 당 40~60자)로 쓰되 상황에 따라 짧게 끊어 쓰면 오히려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만연체로 길게 써야합니다.

실전연습 1-10

다음은 문장을 나누어 짧게 고치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현대화로 자본주의의 물질 측면은 급격히 발전했으나 그것을 성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신적 측면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이고, ‘돈’만을 절대 가치로 삼는 물질만능주의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획일화된 성공 모델이 삶을 짓누르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어떠한 대안적 삶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쳐 쓰기>

<예시 답안>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현대화로 자본주의의 물질 측면이 급격해 발전했다. 그러나 그것을 성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신적 측면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돈’만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 물질만능주의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자본주의적 성공 모델 삶을 짓누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정신적 측면에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어떠한 대안적 삶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전연습 1-11

다음은 문장을 나누어 짧게 고치시오.

소비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소비나 모방소비와 같은 잘못된 소비행위가 많은데, 과소비란 자신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소비를 말하므

로 과시소비란 돈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높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소비이고 이 소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잘 나타나고, 대개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나곤 한다.

<고쳐 쓰기>

<예시 답안>

소비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시소비나 모방소비와 같은 잘못된 소비행위가 많다. 과시소비란 자신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어 자신의 신분을 높게 보이도록 하려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소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 형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잘 나타나고, 대개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나곤 한다.

실전연습 1-12

다음은 문장을 나누어 짧게 고치시오.

독일 태생의 유태인으로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통해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그의 분석은 중세로부터 시작되며 사회의 질서에 예속되어 있던 중세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이미 주어진 삶의 방식에 충실할 뿐이었지만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부르주아와 달리 하층 중산계급은 자유를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궁핍해졌고 거대한 체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공포감이 생겨났다.

4-5) 구어체와 문어체

논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설득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법에 따라 사용하는 문체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문체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전자를 문어체라 하고 후자를 구어체라 합니다. 즉 글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논술 답안은 문어체로 작성해야 합니다.

The Logic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란 음성 언어를 바탕으로 그와 가까운 어투의 문장으로 쓰려는 언어의 한 문체이다. 즉 일상 회화에서 접할 수 있는 말투를 글로 옮긴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일상 담화에서 쓰지 않는 일종의 문장체로서 문법에 따라 쓴 문장을 의미한다. 구어체보다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타인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실전연습 1-13

다음의 문장을 문어체로 바꾸시오.

제시문 (다)랑 제시문 (라)는 인간한테 바르게 살라고 말한다.

<고쳐 쓰기>

<예시 답안>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는 인간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전연습 1-14

다음은 문장을 문어체로 바꾸시오.

근데 플라톤은 뭇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존경했을까.

<고쳐 쓰기>

<예시 답안>

그런데 플라톤은 무엇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존경했을까.

4-6) 어색한 문장

논술은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글입니다. 즉, 수험생은 채점자를 설득시켜야하는데 답안에 어색한 문장이 많이 들어있다면 채점자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불러일으켜 답안에 대한 신뢰를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최대한 올바른 문장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The Logic

<예제1>

나는 꽃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

-> 영어 'Have'를 이용한 번역투가 사용된 것으로서 '나는 꽃 알레르기가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제2>

이러한 일련의 애국정신들은 우리를 강하게 했다.

->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만 붙일 수 있는 것으로서 공기, 행복, 사랑, 물, 비 등의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애국정신은 우리를 강하게 했다.'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3>

아리스토텔레스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 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진다.

-> 국어는 주어의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후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논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4>

우리 7사람은 정기적으로 모인다.
-> 숫자 '7'이 '칠'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읽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우리 일곱 사람은 정기적으로 모인다.'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5>

나는 신년인 새해부터는 새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 '신년'과 '새해'가 의미 중복이 된 문장으로서 '나는 새해부터는 새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중복적 표현으로는 '역전앞' '동해바다' '스스로 자멸하다.' '혼자서 독학했다.' '새로 신설한' 등이 있습니다.

<예제6>

우리 조상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아름다운 풍속을 가꾸며 화목하게 살아왔다.
-> 주어와 술어의 호응 구조가 어색한 문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아름다운 풍속을 가꾸며 화목하게 살아왔다.'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연습 1-15

다음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꾸시오.

화요일과 수요일의 비들이 그친 후 나는 거리로 나갔다.

<고쳐 쓰기>

<예시답안>

'비'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뒤에 '-들'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실전연습 1-16

다음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꾸시오.

길브레스의 이러한 과학적 설계는 학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다.

<고쳐 쓰기>

<예시 답안>

‘좋다’와 ‘호평’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혹은 ‘호평을 받았다고 고쳐야 합니다.’

실전연습 1-17

다음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꾸시오.

특히 조합원들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커녕 주거 생활의 안정마저 흔들리자 최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관계가 없고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주택 조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쳐 쓰기>

<예시 답안>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어색합니다. ‘특히 조합원들은 ~ 주택 조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연습 1-1

다음은 아래 조건에 따라 원고지에 옮겨 적으시오.

- ① 문단의 첫 글자를 교정부호를 사용해서 한 칸 띄울 것.
- ② 맞춤법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할 것.
- ③ 한 문장 당 40~60자로 간결하게 옮길 것.
- ④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꿔 옮길 것.
- ⑤ 어색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옮길 것.

